

## 통구스족 어윙키 오로첸을 찾아서 —내몽고 홀룬베르맹 답사기—

김 주 원\*

일정

7월 28일 대구—서울—베이징(北京)—후호호트(呼和浩特)

답사 준비(후맹(盟) 외사부(外事部)에 연락)

- 8월 4일 후호호트—하이랄얼(海拉爾)
- 8월 5일 하이랄얼—다싱안링(大興安嶺)—오로첸(鄂倫春)족  
자치기(自治旗) (아리허(阿里河)진(鎮))
- 8월 6일 오로첸 민족 박물관, 가셴(嘎仙) 동굴, 오로첸어 조사
- 8월 7일 오로첸족 자치기—우루부테(烏魯布鐵)(언어 조사)—  
다양수(大楊樹)진
- 8월 8일 다양수(大楊樹)진—오로첸족 자치기
- 8월 9일 오로첸족 자치기—하이랄얼
- 8월 10일 어윙키(鄂溫克)어 조사
- 8월 11일 하이랄얼—만저우리(滿洲里)—홀룬(呼倫)호—하이랄얼
- 8월 12일 하이랄얼—휘(輝)슌, 언어 조사—이민(伊敏)슌
- 8월 13일 이민슌—어윙키족 자치기(난툰(南屯)), 언어 조사
- 8월 14일 어윙키족 자치기—어윙키 박물관—하이랄얼
- 8월 15일 하이랄얼—후호호트 내몽고대학
  
- 8월 17일 제3차 국제 몽골학 학술대회 참가
- 8월 22일 후호호트—실린골(錫林郭勒)맹 원상도(元上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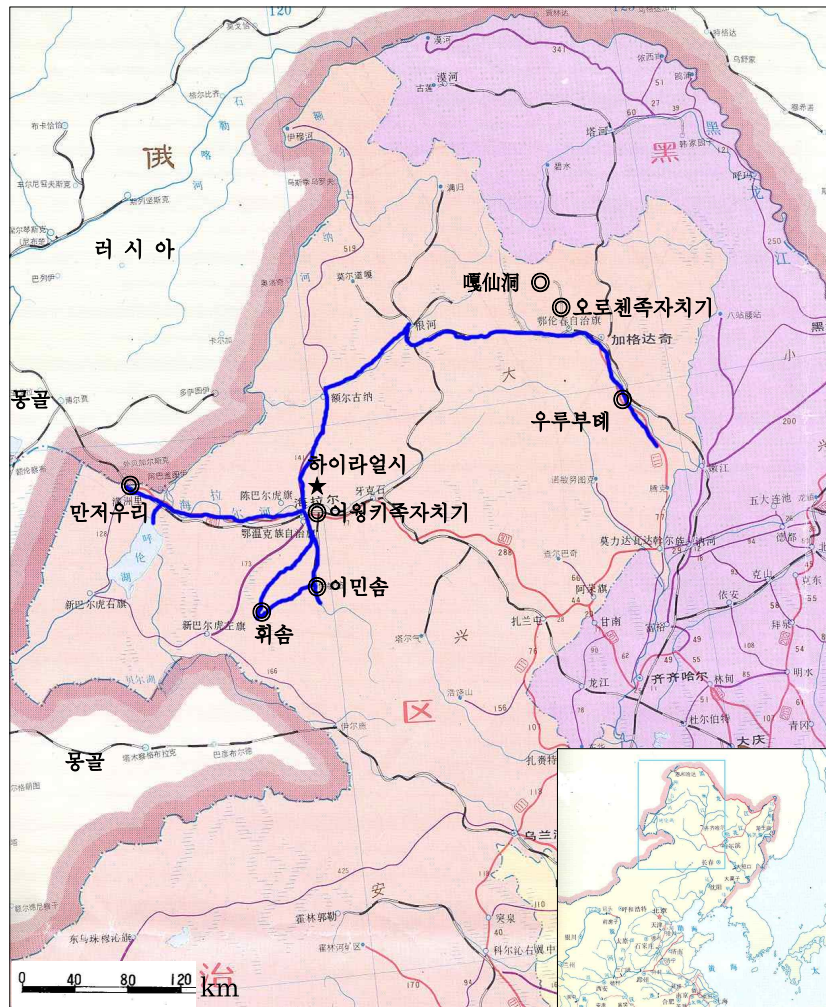
---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란치(正藍旗))

8월 24일 원상도—베이징

8월 25일 베이징—서울—대구



중국 내몽고(內蒙古) 자치구 hulunbeiermeng(呼倫貝爾盟) 지도와 답사 경로



1998년 8월 4일(화) 하이라얼시 도착

내몽고 자치구의 수도 후흐호트에서 하이라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직선거리로 1,600Km이며 기차로는 40시간이 걸리는데 비행기로는 2시간이면 갈 수가 있다. 내몽고의 초원과 주름진 산이 멀리 아래로 내려다보인다. 이렇게 빨리 하이라얼로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더구나 어윙키인, 오로첸인을 만나러 간다니 꿈만 같다. 다싱안링 골짜기를 누비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아 왔을 통구스인을 만날 수 있을까?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을까? 어쨌거나 그 여행의 출발지인 하이라얼로 향하고 있는 비행기를 지금 타고 있는 것이다. 실로 20여 년 간 품고 있던 꿈이 실현되려는 순간이었다.

이 여행의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은 내몽고대학에 계신 칭걸테(清格爾泰) 선생님이다. 1996년 구결학회 국제회의에 초빙되어 오셨는데 오랫동안 서신 왕래만 있었던 터이라 이번 기회에 인사도 드릴 겸 질문할 것도 있어서 선생님을 만나 뵈게 되었다. 자상한 인품이 외모로 드러나는 분이였다. 학회 다음 날 민속촌 관광을 하면서 말동무를 해 드렸다. 공통어는 일본어였다.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은 1959년에 출판된 선생님의 논문에서 주장하신 “남성 모음을 발음할 때 혀가 뒤로 움츠러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훈민정음(訓民正音)에 나오는 “설축(舌縮)”이나 그것에 관계된 글이라도 보신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었다. 선생의 대답은 본 적이 없으며 (1988년에 훈민정음 해례(解例) 복사본을 보내 드린 바는 있다) 몽골제어 방언 조사를 하면서 관찰하고 실험한 결과 얻어진 결론이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독자적인 관찰에 의해서 15세기의 세종대왕을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학자들의 관찰이 매우 정밀했음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선생은 비원이나 민속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그저 단체 관광에서 누가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정도였다. 관광버스에 타면 또 이런 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가 내년에 있을 안식년 동안에 통구스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몽골어를 배워야겠는데 외몽고로 가야 할지 내몽고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씀 드렸다. 그랬더

니 선생께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내몽고로 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이유 중에서 쓴이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은 것은 통구스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민족이 내몽고에 살고 있다는 말씀이었다. 쓴이는 이 때 내몽고로 가리라 결심을 굳혔던 것이다.

드디어 하이라얼 공항에 도착하였다(해발 610m). 초원 상에 건설된 공항이어서 내려서 활주로를 벗어나면 이내 초원이요 그 초원에는 온갖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다. “海拉爾”라는 커다란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여기가 내몽고 홀룬베르맹의 주도(主都)이다. 북위 49도 지역으로 10월이 되면 영하로 내려가서 추울 때는 영하 30도 정도가 보통인 곳이다. 공항에는 미리 연락을 해 두었던 터이라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의 답사는 예비 답사의 성격이었다. 나는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반응을 보고 싶어서 이번 답사를 공개적인 일로 했다. 내몽고대학의 부교장인 흑질트(呼格吉勒圖)교수에게 부탁하여 홀룬베르맹의 와이스반공스(外事辦公室)에 팩시밀리로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8. 7. 31.

후멍와이반(呼盟外辦)

양푸마오(楊福茂) 주임(主任):

안녕하십니까. 자치구의 외사사무처 杜처장의 소개로 이 편지를 드립니다. 한가지 번거로운 부탁이 있습니다. 한국의 영남대학교 교수 김주원 선생은 알타이어계 언어 연구에 종사하는 분인데 우리학교에 학술 방문, 연구 중입니다. 후멍에 가서 학술 고찰을 하기를 희망하는데 귀 명의 와이반(外辦)에서 지지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어르구너(額爾古納)좌기, 오로첸족 자치기 그리고 어윙키기에 가고자 합니다. 그는 조선어와 일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조선어 또는 일본어를 말하는 안내인을 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숙식 문제도 안배(安排)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비용과 통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김주원 선생이 부담합니다. 구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4일	후호호트(呼市)—하이라얼
8월 5일	어윙키족 자치기
8월 8일	어르구너기
8월 10일	오로첸족 자치기
8월 14일	하이라얼
8월 15일	하이라얼—후호호트

잘 부탁드립니다.

흑질트(내몽고대학 부교장)

그 안내인으로 조선족 사람이 나온 것이었다. 안내인의 이름은 허석문(許石文), 나이는 31세이며 내몽고대학 법학계를 졸업했다고 한다. 부부가 같이 전문 가이드 업에 종사한다고 한다. 그의 안내로 베이위안(北苑) 영빈관에 도착하였다. 중국의 호텔은 대부분 호텔비의 2배 내외를 미리 받아둔다. 기물 파손 등에 대비해서인데 이를 야진(押金)이라고 한다. 400위안(元)을 미리 내었다.

잠시 쉬고 있으려니 그와 함께 국제여행사(國際旅行社)의 지배인(經理)이 와서 나의 여행에 대해서 묻고 설명해 주었다. 그의 유창한 일본어로 한 설명의 요지는 이러했다. 홀른베르맹의 와이스부(外事部)로부터 의뢰가 왔는데 자기의 회사에서 나의 여행의 안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내가 미리 알린 여행 계획표에 적힌 지역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이 지역들은 대부분 기차를 이용하여 갈 수 있으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역시 자동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기차로 여행하려면 기차표를 구해줄 것이고 자동차로 여행하려면 자동차를 주선해 주겠다는 것이다. 나는 당연히 자동차 편을 택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대하던 중국인과는 달리 매우 사무적이며 능률적인 인상을 주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는 일본에 몇 년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이 여행사에서조차 일본인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일본인의 구미에 맞는 경영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그것이

편하였다. 그는 앞으로 얼마만큼의 경비가 들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도록 분명히 설명해 주었던 것이다. 자동차는 하루 빌리는 데 인민폐 600위안(元, 이 당시의 환율은 인민폐 1위안=한국 돈 150원에 해당한다)인데 이 속에는 운전기사 수고비와 기름 값 등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이드비는 하루에 120위안이며 그 밖에 드는 돈은 이들의 식사비와 숙박비라는 것이었다. 대체로 하루에 1,000위안에서 1,200위안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나로서는 비용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승낙할 생각이었으므로 꽤히 좋은 기사가 딸린 자동차를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어서 경리, 가이드와 상의를 해서 답사 일정표를 완성하였다. 대략 말해서 지금 비가 자주 오니까 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곳에서 먼 곳인 오로첸족 자치기를 먼저 갔다 온 후 어윙키족 자치기를 간다는 계획이 잡혔다.

점심 식사는 허씨가 대접하겠다고 나섰다. 누님이 경영하는 서울판점(飯店)에 갔는데 거기에서 잘 하는 음식이 구육(狗肉)라고 해서 오랜만에 별미로 먹었다.

오후에는 지도로만 보아왔던 이민강에 가 보았다. 이 강의 상류에 어윙키족 집거 지역이 있다. 하류로 내려오면서 어윙키족 자치기를 거친 후 하이라얼을 지나 하이라얼 강에 합류한다. 하이라얼 강은 다시 어르구너 강에 합류하여 그 강이 커지면서 흑룡강이 되는 것이다. 강폭은 약 200m 정도였으며 강 가운데 모래톱이 있어서 강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흐르고 있었는데 물살이 꽤 세어 보였다. 강가에는 낚시하는 사람들, 빨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20여명 정도가 수영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강으로 뛰어 들어 빠른 물살을 헤엄치면서 100여m 정도 떠내려 간 후 강안으로 도달해 올라 와서 걸어서 출발지로 되돌아 온 후 다시 강에 뛰어들었다. 해 질 무렵이 되자 수영꾼도 서너 명밖에 남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 와서 출발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가슴을 달랬다.

호텔비 240위안, 항공료 편도 840위안

1998년 8월 5일(수) 오로첸족 자치기 도착

약속한 8시 30분이 되자 허씨가 기사와 함께 호텔 방으로 올라 왔다. 그

는 거구의 한족(漢族)인데 이름은 후이펑차오(惠風超)씨라고 했다. 허씨의 말로는 몸무게가 220근(斤)(한 근은 500그램)이나 된다고 한다. 짐을 챙겨 내려가 보았더니 중국산 지프가 대기하고 있었다. 80마력의 BJ2020SG형으로 초원에서는 제일 잘 달린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8시 45분 호텔을 출발하였다. 예정했던 큰 길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난 길을 택했는데 큰 길은 며칠 전에 내린 비 때문에 끊어졌다는 것이다. 어르구너 우기(右旗)까지는 초원 가운데로 아스팔트 길이 잘 나 있었다. 이 초원은 매우 아름다웠다. 온갖 풀과 꽃이 어울려 피어 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풀의 키가 50cm나 된다고 했다.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이며 양 떼들이며 소 떼들이 한 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이 드문드문 나타나곤 했다. 어르구너를 지나자 지형이 바뀌면서 구릉 지대가 시작되었다. 여기의 구릉은 그 능선의 곡선이 너무나 부드럽다. 이러한 구릉 위에는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초원이 구릉 위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약 30분쯤 더 달리자 이제 구릉 위에 나무들이 조금씩 보인다. 구릉이 산 모양으로 변하면서 점차 나무들이 산허리에도 자란다. 이제 우리는 다싱안링(大興安嶺) 산맥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길은 이미 아스팔트가 아니라 사토(沙土)를 다져 놓은 비포장 도로이다. 차 두 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였다. 지프차는 비로 패인 웅덩이를 이리저리 피하며 어둡기 전에 목표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다.

드디어 원시림 지대로 들어섰다. 길 양쪽으로 높이 30 내지 50m 정도의 나무들이 뺨뺨이 들어서 있는데 수종은 주로 꺾질이 흰 백화수(白樺樹)와 전나무였다. 작년에 후호호트에 체재하면서 내몽고의 나무 없는 초원을 여러 차례 여행했던 나로서는 이 나무들의 존재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무식하게도 인공 조림한 것이냐고 물었다. 내몽고 남부의 숲은 거의가 인공 조림한 숲이기 때문이다. 기사 후이씨는 놀라면서 오히려 속아 낸 것이라고 답해 준다.

이런 밀림이 한 동안 계속되다가 다시 짧게 초원 지대가 나타나고 곧 이어 또 침엽수림 지대가 나타나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점차 다싱안링 속으로 들어갔다. 길 왼쪽 아래로 큰 강이 나타났다. 건허(根河)라고 일러준다. 원시림 속의 강답게 사람의 접근을 불허하는 모양새를 하고 흐르고 있었다.



저 강을 이곳 원주민인 어왕키족이 백화수 껍질로 만든 배를 타고 고기도 잡고 이동하기도 했으리라. 차 세우기 좋은 곳에 내려 사진 촬영을 하였다.

오후 1시 45분에 이투리허(伊圖里河)진에 도착하였다(해발 840m). 반정도 온 썸이다. 점심 식사를 한 후 길 가를 따라 열린 시장을 둘러보았다. 산에서 나는 열매와 과일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잣나무 열매였다. 중국말로로는 쑹수타(松樹塔)라고 하는데 크기는 우리나라의 솔방울 만한데 껍질을 한 개 한 개 벗기면 그 속에 노르스름한 잣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다시 까서 속 알맹이를 먹는 것이다. 고소하면서도 약간 짭짤해서 맛이 그만이었다.

1시간 후 출발하였다. 이제 지형은 낮이 익었다. 한동안 밀림이 계속되다가 약간의 초원 지대, 그리고 가끔 나타나는 강 이러한 것이 섞바뀌어 나타났다. 그래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도로 사정이었다. 패인 웅덩이 때문에 언제 어느 쪽으로 몸이 튕지 모른다. 엉덩이가 좌석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을 만큼 이리 튀고 저리 튀었다. 가장 위협적인 것은 차 지붕을 가로지른 굵은 쇠 파이프였다. 거기에 두어 번 부딪혔는데 더 세게 부딪혔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이 글을 쓰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궁리 끝에 생각해 낸 것이 차가 뛰면 우선 고개부터 숙이는 것이었다. 중간에 조그마한 마을을 몇몇 지나쳤다. 산림 속이라 곳곳에 임장(林場)이 있었고 굵고 기다란 나무가 쌓여 있었다. 모든 집들은 하나 같이 나무 판자로 담을 둘렀으며 집 한 켠에는 빨감용 나무들이 어른 키 높이만큼 재여 있었다.

지도상으로 보니 이제 20분 후면 커이(克一)진에 도착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강을 하나 건너야 하는데 거기에 놓여 있던 나무다리가 이번 비에 떠내려 가 버린 것이었다. 강의 너비는 10 여m 정도 되어 보였다. 강 건너편에 끊어진 다리의 흔적이 보인다. 모두 차에서 내려서 센 물살의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이 지점에서 되돌아가서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예닐곱 명이 나타났다. 다리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모두의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다. 그들의 설명인 즉 떠내려간 다리 옆에 자신들이 가슴까지 오는 물 속에서 며칠간에 걸쳐 작업을 하여 임시 다

리를 놓았다는 것이다. 그 다리를 건너는데 200위안을 내라는 것이었다. 10m 상류 쪽을 보니 중간에 판자 몇 개를 빼놓은 나무다리가 놓여 있었다. 일반 노동자들의 한 달 급료가 300위안 정도임을 생각해 보면 200위안은 매우 큰돈이다. 그러나 그들이 놓은 다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그들이기에 엄청난 값을 부른 것이었다. 중국인 기사와 안내인이 값을 깎으려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끝에 드디어 그들이 중간에 빼놓았던 판자를 열기설기 엮어 주었다. 우리의 지프차는 조심조심 그 다리를 건넜다. 나중에 물어보았더니 깎아서 120위안을 주었다고 했다.

드디어 커이진에 도착했다. 오후 5시 40분이었다. 여기에서 타이어의 펑크를 수리하고 6시 30분에 출발하였다. 이미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도중에 위험한 길이 몇몇 있었으나 기사 惠씨가 경험이 많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 8시가 넘자 사방이 완전히 캄캄해졌다. 도로 표지판도 없는 길을 잘도 달려 9시 20분에 아리허(阿里河)진에 도착하였다(해발 460m). 이곳이 바로 오로첸족 자치기의 주도 즉 인민 정부 소재지이다. 12시간 30분만에 도



<사진 1>

착한 것이다. 이곳에서 제일 좋은 가센 빈관(賓館)에 여장을 풀었다. 호텔 로비에는 “오로첸족은 당신을 환영합니다(鄂倫春歡迎您)”이라는 동판이 붙어 있었다<사진 1>. 호텔은 깨끗하여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수도를 틀어 보니 붉은 녹물이 나왔다. 이 물 좋은 곳에 녹물이라니. 수도관이 낡아서 안으로 녹이 스는 것이다.

호텔비 표준실 120위안, 2인 스위트룸 160위안, 1인 스위트룸 300위안

#### 8월 6일(목) 최초의 언어 조사

아침 5시에 눈이 떠졌다.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 봤더니 새벽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분주히 오가고 있다. 궁금해서 사람들을 따라 가 봤더니 역 앞에 있는 새벽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시장에 내다 놓은 물건은 야채, 과일이 많은데 고기도 있고 잡화도 있어 낮의 상설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이점은 값이 싸다는 것이다. 부부가 같이 일터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새벽 장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았다. 역 앞으로 갔더니 오토바이에 수레를 단 영업용차가 많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 번 타는데 2위안을 받는다.



<사진 2>

아침 식사는 호텔에서 뷔페 식으로 했다. 숙박비에 식사비가 들어 있다고 한다. 메뉴는 바오즈(包子: 야채 만두, 고기만두), 삶은 계란, 우유차(奶茶), 치즈(黃油) 등인데 치즈가 특히 먹을만 했다. 9시쯤 되니 어제 저녁에 우리를 맞아주었던 몽골인 천차오(陳橋: 27세)씨와 조선인 신려(申麗: 약 23세)씨가 찾아 왔다. 신려씨는 안내인 허씨의 처제이라고 한다. 둘은 결혼이 약속되어 있는 사

이라고 했다. 무척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다. 이들이 오로첸족 자치기에 있을 동안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반갑고 고마워서 천(陳)씨에게 “샌배노”하고 인사했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 버렸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는 몽골어를 모르는 몽골족이었다.

먼저 오로첸 민족 박물관을 가 보았다. 100평 남직한 전시관에 책에서만 보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 쪽 구석에는 셴런주(仙仁柱)라고 불리는 오로첸인들의 이동식 거주지가 있었는데 몽골의 천막집 ‘거르 ger’만 보다가 이것을 보니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사진 2>.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오로첸인들의 생활에 걸맞는 주거 공간이다. 크기는 각각 다르나 박물관에 전시된 것은 길이 약 5m, 직경 10cm 정도의 백화수 줄기 20여 개를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넓은 원뿔 모양이 되게 열기설기 걸치고 걸을 짐승의 가죽으로 둘러싸서 눈비를 피하도록 되어 있다. 내부에는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솥을 걸쳐놓을 수 있게 해서 조명과 난방을 동시에 해결한다.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인과는 달리 산림 속에서 사는 오로첸인들은 수렵을 주된 생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주위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간편히



<사진 3>

세울 수 있는 거주지가 적격한 것이다. 내부의 자리 중 가장 귀한 사람이 앉는 위치를 ‘말로’라고 한다. 전시물 중에는 백화수 껍질로 만든 생활 용구가 특히 많았다. 다고르족 전시물 가운데에는 滿文『三國演義』도 있었다<사진 3>.

여기에서 오로첸인을 만났다. 그녀는 이 박물관에서 근무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조선 사람인줄 알았단다. 자기 이웃에 조선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말뜻은 모르지만 조선말인지는 안다는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이름은 우슈취안(吳秀娟)이고 35세 가량인데 부모 모두가 오로첸인이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일상어로 한어(漢語)를 쓴다고 했다. 이름이 왜 한인(漢人)식이냐고 물었더니 오로첸식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오로첸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처음 만난 오로첸인이었고 반가운 나머지 오로첸어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쾌히 응하였다. 그런데 일요일 이외에는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뭇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고 했더니 일과 후에는 백화수 껍질을 이용하여 판매용 공예품을 만든다고 했다. 박물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전시품



<사진 4>

의 이름을 오로첸어로 말해 주었다. 그러는 사이에 또 한 여인이 나타났다. 역시 박물관에 근무한다는데 어윙키인이라한다. 그런데 어윙키어는 모른다고 했다. 우리는 말 탄 오로첸인 사냥꾼 모형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헤어졌다<사진 4>.

오후에는 아리허에서 10km 정도 서북쪽에 있는 가셴둥에 갔다. 입구 폭과 높이가 각각 30m 정도에 길이가 100m 정도 되는 동굴인데 실위(室韋)인이 제사를 지내던 유적지이다<사진 5>. 이제 북방 민족의 생활 무대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났다. 이 동굴이 발견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나 동굴 속의 축문이 발견된 것은 극히 최근인 1980년에 이르러서이다. 이 동굴의 존재와 동굴 속 축문에 대해서는 『魏書』의 「烏洛侯傳」에 상세하게 나온다.

世祖眞君四年(443 AD)來朝，稱其國西北有國家先帝舊墟，石室南北九十步，東西四十步，高七十尺，室有神靈，民多祈請。世祖遣中侍郎李敞告祭焉，刊祝文于室之壁而還。



<사진 5>



이 축문을 찾은 미원평(米文平)씨의 답사기에 의하면 석각 축문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손으로 더듬어 가며 탐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하루는 오후 세시 경에 비스듬히 비쳐 들어오는 태양 빛을 통해서 동굴 입구의 왼쪽에서 ‘四’자를 찾았는데 더 확인해 보니 “維 太平眞君四年……”으로 시작해서 “尙饗”으로 끝나는 축문 첫 줄의 ‘四’자였다고 한다. 이 발견을 통해서 이곳이 북위 황제 탁발 씨의 선조의 구허(舊墟)임이 확인된 것이다. 석각 부분의 폭은 4m, 높이는 2m 정도인데 훼손을 우려해서 철 구조물로 봉인을 해 두어서 실물은 볼 수 없었지만 오전에 들렀던 박물관에서 그 모형을 볼 수가 있었다. 석실 가운데에는 널찍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것 역시 회의와 제사에 사용된 것이리라. 돌아오는 길에 초원과 숲이 어울린 풍경이 아름다워서 여러 차례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었다.

천씨와 신씨는 오로첸인을 데리고 오겠다면 시내에 들어서자 차에서 내렸다. 호텔에서 약 1시간을 기다렸을까, 오후 4시가 되자 두 명의 여인을 데리고 나타났다. 한 사람은 50세가 좀 넘어 보이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30대 중반의 지식인 풍모의 여인이었다. 두 분은 오로첸 자치기 부녀연합회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했다. 나이가 많은 분은 허창화(曷長花)씨로 47세이며 가족이 해방 전에 헤이허(黑河)에서 구리(古里)로 이주하였다고 했다. 젊은 분은 아팡(阿芳)씨로 34세이며 우루무티에 출생이며 내몽고 목축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었다. 오로첸어 외에도 한어(漢語), 몽골어, 다고르어를 자유롭게 말하며 약간의 영어도 말한다고 했다. 남편은 몽골인이며 집에서는 한어(漢語)를 사용하는데 9살 난 딸아이도 한어(漢語)밖에 모른다고 하였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들도 어른에게 말할 때만 오로첸어로 말하고 평소에는 한어(漢語)나 몽골어를 쓴다고 했다. 20세 이하는 오로첸어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제 조사 목적을 간단히 설명하고 언어 조사를 시작했다. 후호호트에 도착해서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사 둔 아동 한자 학습용 카드를 보여 주면서 오로첸어로 말하게 하였다<사진 6>. 이 방법은 한어(漢語)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쓴이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교육책이기도 했지만 대단히 효과적이기도 했다. 간혹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채소류



&lt;사진 6&gt;

에 대해서 한어(漢語)형을 답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는 대답이 많았다. 여우(狐狸)를 묻는 부분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자 쓴이가 책에서 본 지식으로 '솔라히'가 아니냐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미 동물의 이름도 이들의 일상어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두 제보자는 가끔 방언 차이도 보였다. 한 예로 '자다'의 경우 허씨는 '아아히넌'이라고 하고 아팡씨는 '아아시넌'이라고 답한 것이다. 둘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가끔 답이 다르면 둘

이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한가지로 결정해 주기도 했다<사진 7>. 약 40분



&lt;사진 7&gt;



에 걸쳐 260여 개의 어휘 조사가 끝났다. 오로첸어로 인사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시 아야 비시니”(직역하면 ‘너 잘 있느냐’)라고 답해 주었다. 총 조사시간은 1시간 30분이었다.

아광씨의 설명에 의하면 자치기가 성립된 1951년부터 1958년까지는 수렵을 했지만 1959년부터 1971년까지는 수렵과 농업을 겸하였으며 1996년에는 수렵이 전면 금지되고 충기를 국가에서 거두어 갔다고 한다. 지금은 농업, 임업, 목축업 등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나마 젊은이는 도회로 나가서 그럭저럭 적응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적응이 되지 않아 매우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미리 준비해 온 담배, 라이터, 스타킹을 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다.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광은 처음은 내키지 않아서 겨우 왔는데 언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진지하고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해 주었다. 식사 끝에 우리의 계획을 말해 주었는데 우리가 가려는 간구이(甘奎)가 바로 자신의 고향이라며 선뜻 동행, 안내하겠다고 제의하였다.

#### 2일분 숙박비 366위안

8월 7일(금) 비온 후 갬, 오로첸 정착촌 방문 조사.

오늘 아침에도 5시가 조금 넘어 잠이 깼다. 거리를 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텔레비전을 틀어 보았더니 홍수 뉴스가 한창이다. 창장(長江)과 년장(嫩江)에서 동시에 홍수가 났는데 여기 저기의 교통 두절 소식과 물 속에 들어가서 몸으로 물을 막고 있고 인민군의 모습이 자주 비쳤다. 쓴이가 있는 이곳도 년장 유역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상류 지역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아침 6시, 20.5).

9시 15분 일행이 모두 모여 출발을 했다. 기사, 허씨, 천씨, 신씨, 아광 그리고 쓴이 모두 6명이 작은 지프차에 포개듯이 해서 겨우 다 앉았다. 4민족이 타고 있는 것이다. 길은 여전히 비포장 웅덩이 길이어서 이리 쏠리고 저리 부딪히면서 달렸다. 쓴이는 아광과 같이 앉아서 이런 저런 오로첸 말을 배웠다. 1시간 30분 후에 자치기에서 큰 도시에 속하는 작다치(加格

達奇)에 도착하였다. ‘작다’가 ‘松樹’(우리의 전나무에 해당할 듯)를 가리키니 ‘松樹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차들을 보니 헤이룽장(黑龍江)성 차번호인 ‘黑’자를 달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이 도시를 헤이룽장(黑龍江)성에 조차해 주었다고 한다.

이곳을 지나자 여전히 비포장 길이지만 꽤인 웅덩이가 없어서 한결 편하게 갈 수 있었다. 길 왼쪽으로 차오양(朝陽)이 보인다. 지금 가고 있는 우루부티에도 엽민대(獵民隊)가 있지만 저기에도 엽민대가 있다는 설명이다. 내리막길로 들어섰는데 건너편 차선에 트럭이 한 대 서 있고 사람들이 모두 내려와 있었다. 아팜이 아는 사람인 모양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그 중 한 사람을 더 태웠다. 설명을 들어보니 기름 탱크의 나사가 하나 빠졌는데 그런 줄 모르고 계속 달렸더니 기름이 다 새고 차가 서 버렸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기름을 가지러 간단다. 그러고 보니 건너편 차선에 가느다란 기름선이 한 줄 쭉 이어져 있었다.

7명이 탄 채 얼마 더 달렸더니 오른쪽으로 마을이 보인다. 우루부티에도 도착한 것이다. 오후 1시 15분이다. 지도에는 간구이라고 되어 있으나 간구이는 오래 전부터 쓰이지 않은 지명이라고 한다. 미리 연락을 해 두었던 듯 우선 인민 정부에 가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곧 식당으로 안내되었고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기(書記) 2명(오로첸인, 다고르인), 부인연합회 회장 2명(오로첸인, 한인(漢人)), 그리고 우리 6명 해서 모두 10명이 환영회 겸 식사를 하게 되었다. 특별히 준비한 듯 이들이 평소에 잘 먹지 않는 해산물이 많았다. 홍합, 큰 새우, 작은 새우, 해파리 냉채 등이었다. 물론 양고기는 빠지지 않는다.

돌아가면서 환영사 답사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 화기애애해졌다. 다고르인 바토르 서기(‘바슈지’라고 불렀다)에 의하면 수년 전에 일본인 두 사람이 다녀간 이래 외국인은 처음이며 한국인으로서는 물론 처음이라는 것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쏬이의 연구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오로첸의 언어 문화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고 우리 일행은 환대에 감사한다고 답사를 했다. 쏬이는 오로첸의 언어 문화가 영원히 지속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답사를 했다. 그럴 때마다 간배이(乾杯)를 하게 되

니 술을 못 마시는 쓴이로서는 꽤나 힘이 들었지만 즐겁게 잔을 비웠다. 마지막으로 이 식당의 자랑이라는 다오샤오몐(刀削麵)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1시 30분부터 시작한 식사가 3시 30분에 끝이 났다.

두 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마을의 남쪽 끝에 있는 엽민대로 향하였다. 엽민대란 수렵을 생업으로 하는 오로첸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가옥을 만들어 제공한 정착촌에 붙인 명칭이다. 중국에서 흔히 보는 벽돌로 지은 집으로 약 20여 채의 아담한 가옥이 있었다. 여느 농촌 집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집 앞 텃밭에는 해바라기 배추 등의 채소가 심어져 있었다. 이곳의 주민들이 과거에 수렵을 했다는 어떤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쓴이는 여기에서 獵의 간체자 猎 자를 떠올렸다. 그렇다. 당국으로서나 오로첸으로서나 ‘수렵’은 이미 까마득한 ‘옛날’의 일인 것이다. 동행인들의 설명에 의하면 1950년대 말까지는 셴런주가 하나 둘 마을에 있어서 창고 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 후 그것은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전시품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다. 정착 거주를 거부하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수렵을 하고 물물 교환을 위해 가끔 마을로 내려오는 다싱안링의 오로첸인을 기대하던 쓴이로서는 여간 실망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공산주의 국가에 수렵을 생업으로 하는 원시 민족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국가 위신이 깎이는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해서 국가로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 처음에는 흙집을 지었다. 1951년의 일이다. 오로첸인을 설득하여 마을로 내려와서 살게 하였으나 그들은 조금 살아본 후 대부분이 산으로 돌아가 버렸다. 사방이 벽으로 갇힌 구조물 안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허름한 흙집을 헐어 버리고 다시 상당히 고급스런 벽돌집을 지었다. 1958년의 일이다. 여러 가지 혜택과 더불어 당국의 강제적인 권유에 의해서 그들은 정착 민족이 된 것이다. 1996년에 이르러 생업 도구인 총기마저 반납하고 말았으니 수렵은 영원한 과거사가 되고 만 것이다. 그들에게 총이 없는 것은 단지 생업이 바뀐 정도가 아니다. 그들의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그들의 민족혼이 사라진 것이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말을 잊어버린 채 도회로 나가서 평범한 중

국민으로 변하고 수렵의 기억을 가진 마지막 세대들은 사각의 방에 갇힌 채 술로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행은 전 서기인 홍메이(紅梅)씨 댁을 먼저 방문하였다. 올해 68세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약 10분에 걸쳐 간단한 질문만 몇 개하고 마쳤다. 예의상 전 서기의 집을 방문하게 한 것 같았다. 다음으로 안내되어 간 곳이 나이수메이(內淑梅)씨 댁이었다. 붉은 벽돌 집을 들어서니 조그마한 마당이 있었고 마당에는 경운기가 있었다. 우리 일행이 들어서자 작은 키의 나이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쓴이는 “시 아야 비시니”라고 인사를 했다. 반가워하며 “아야 아야”라고 대답했다. 올해 54세이며 아팡 씨의 모친이다. 아팡이 태어난 곳도 이 집이라고 한다. 현관을 거쳐 응접실로 신을 신은 채 들어섰다. 응접실은 남쪽으로 세 칸 짜리 창이 나 있고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벽에는 이 댁 주인이 부련회(婦聯會) 회장일 때 찍은 사진을 비롯한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창 옆에 긴 소파가 놓여 있었다. 나이씨는 안으로 들어가서 옷매무새를 고쳐서 다시 나왔다. 언어 조사는 전과 같은 요령으로 그림 카드를 보여 주면서 그것을 오로첸어로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녹음을 하며 조사를



<사진 8>

했다. 아광 씨가 미처 대답 못했던 것을 아무런 막힘이 없이 술술 대답해 주었다. 아광 씨의 대답과 다른 대답도 나왔다. 역시 현지 조사가 중요하고 제보자 선정이 중요하구나 하고 다시 느낄 수가 있었다.

1시간 여의 조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와서 기념 촬영을 한 후<사진 8> 그 마을을 떠나 인민 정부로 가서 아까 만나지 못했던 향장(鄉長)을 만나 인사를 하고 우리는 다시 남쪽으로 향하여 서둘러 떠났다(오후 5시 15분). 오후 6시 5분에 다양수(大楊樹)진에 도착하였다. 이 곳의 서기가 조선족인데 그분의 사무실에서 6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두었다 한다. 이름은 김성(金星)으로 나이는 썬이와 동갑이었다. 그의 말로는 한국의 상인이 고사리를 사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다고 했다. 그런데 1원 2원을 따진다고 못마땅해했다. 한국 상인들에게 호감을 못 가진 것 같았다. 저녁에는 이분이 대접한涮羊肉(涮羊肉) 요리를 포식을 했다. 식사 후 우리는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놀았다.

김 서기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뉘민(諾敏)으로 가는 길이 끊어졌고 우리가 돌아 갈 때 들릴 예정인 어르구너로 통하는 길도 끊어졌다고 한다. 실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식사 후 진에서 단 하나의 호텔인 성안(興安) 빈관에 여장을 풀었다. 이 호텔의 요금은 더블베드 룸(雙人高間) 128위안, 2인실 48위안, 3인실 35위안, 4인실 25위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썬이가 묵은 더블베드 룸은 전화도 없고 순간 온수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고장이 나서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았다.

호텔비 방 셋 350위안

8월 8일(토) 아리허로 돌아 옴

아침 식사는 김 서기가 대접한다고 해서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다. 정장을 한 부인과 함께 나왔는데 공안원이라고 한다. 미모가 빼어난 분이었으며 약간의 조선말도 하는 분이였다.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9시 20분에 다양수를 출발하여 어제 왔던 길로 해서 아리허로 되돌아 왔다. 오면서 보니 길 양쪽에 쿡 밭이 많이 보였다. 산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오는 도중에 선

학초가 지천으로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여름이면 꽃이 노랗게 피는데 쥔신나물이라고도 하고 길가에 핀다고 해서 노변초라고도 부르는 약용 식물이다. 우리 나라에도 산자락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곳처럼 많이 피어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노란 꽃이 더 없이 정겹게 느껴졌다.

오후 2시에 아리허에 도착하였는데 이번에는 아광씨가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한다. 나는 극구 사양하였지만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조금 있다가 옷을 잘 차려 입고 딸과 함께 왔다. 2시간 정도 식사를 한 후 그녀는 우루부티어로 다시 간단다. 친척의 결혼식이 있다 한다. 또 5시간을 가야 하는 것이다. 그녀와 나는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나는 딸아이의 어린이용 지갑 안에 200위안을 몰래 넣어 주었다. 그녀에게 직접 주었다가는 퇴짜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저녁에는 천차오씨가 자기의 상사라며 어윙키인을 데리고 왔다. 이름은 투후이쥘(涂輝軍)이며 검찰원의 과장인데 나이는 49세이라고 했다. 원래 이 분을 낮에 만나서 언어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술을 마셔서 저녁에 오기로 약속한 분이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오로첸기에는 약 3,000명의 어윙키인이 있으며 전국에는 26,000명 정도가 있다고 했다. 노인은 어윙키어를 말하고 40대는 어윙키어와 한어를 말하며 그 이하는 한어만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는 어윙키어를 비롯하여 한어, 몽어, 다고르어, 오로첸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원래 흑룡강성 너허(納河)현에 살다가 71년에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하며 그들 민족의 역사에 대하여 300년 전에는 수렵을 하였으며 200년 전부터는 농업을 했다고 말해 준다. 낮에 먹은 술이 아직 덜 깼 상태여서 그런지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카드를 보여 줬더니 연신 담배를 피워 대면서 대답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태반이고 아는 경우에도 어윙키어보다는 다고르어를 먼저 기억해 내었다. 조사를 더 진행할 수가 없어서 20분 정도를 하고는 그만 두었다. 한 인간의 모국어가 사라져 가고 있는 현장을 목도(目睹)한 느낌이었다.

저녁 식사 후 재래식 여관인 연성요우텐(延生遊店)에 들었다. 침대가 덩그러니 3개가 놓여 있었고 세면대와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다른 방 손님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내국인들만 묵을 수 있는 곳인데 중

국민들에 묻혀서 잘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방에 들자마자 파리채로 모기부터 잡았다. 숙박비는 일인당 13위안이었다.

저녁 식사 160위안

8월 9일(일) 하이라얼로 돌아옴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어르구너로 가기로 했던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오기로 했다. 이번에는 몽골인 진씨와 허씨의 처제인 신씨가 하이라얼에 여행차 동행한다고 한다. 오전 8시 20분에 오로첸기를 출발하였다. 11시 15분에 커이진을 통과하였고 12시에 또 다시 끊어진 다리에 도착하였다. 며칠만이지만 물은 그대로이고 물론 다리도 끊어진 그대로였다. 예의 노동자들이 희희낙락 나타나고 우리의 기사와 허씨는 또 다시 가격 협상을 하였다. 이번에는 100위안을 주었다고 한다. 두 번째 본다고 친해져서 한중친선을 외치며 그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 젊은이 하나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주소를 ‘內蒙古 牙克石市 伊圖里河鎮 林業局 銀阿林場 派出所’라고 적어 주었다. 허씨는 이들의 악행을 고발해야 한다고 흥분을 하였다.

오후 2시 20분에 이투리허에 도착하였다. 올 때 먹었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3시 30분에 출발하였다. 두어 시간쯤 더 달리니 이제 싱안링을 벗어나 초원 지대였다. 유채 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고 도로변 넓은 평지에는 밀이 재배되고 있었다. 초원의 녹색과 밀밭의 누른 색 그리고 유채 꽃과 멀리 보이는 부드러운 능선 곡선이 어울린 초원 풍경은 가면서 본 것이건만 아름다워서 또 다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지형은 제주도나 홋카이도를 생각할 수가 없다. 이제 초원이 왜 이런 풍경을 지니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이곳은 표토층이 얇아서 일년생 초본류 외에는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가 없다. 산 또는 구릉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몽고의 모든 산이 약간의 풀만 자라는 민둥산이다. 여기에서 자라는 식물은 이곳에 사는 동물들 즉 면양, 산양, 소, 말 등의 훌륭한 양식이 된다. 이곳은 또한 아프리카 초원과 달리 맹수류들이 발붙일 수가 없어서 천적이 없는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초식 동물밖에 살 수 없는

이곳을 그들의 주인이자 포식자인 유목 민족이 생활 터전으로 삼은 것이다. 이곳에는 곡식류 경작도 되지 않는다. 땅의 지질이 나빠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초본류 외에 인공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나면 그 이후는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으로 변해 버린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이 밀밭 경작은 결국 초원을 잠식해 가고 있는 자연 파괴 행위인 것이다.

도로 여기 저기에 고장나서 서 있는 차들이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 중의 한 명이 무거운 짐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어서 태워 주었다. 세 시간 전부터 이르고 있단다. 오후 6시 30분에 어르구너에 도착을 하였다.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오후 8시 하이라얼에 도착하였다. 이성급(二星級) 호텔인 휘펑다주옌(匯豐大酒店)에 들었다. 1실에 280위안인데 할인하여 200위안을 주었다. 매우 낡은 호텔로서 수도관이 낡아 녹물이 나와서 목욕을 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

#### 8월 10일(월) 어윙키어 조사

허씨에게 새로운 호텔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번에 간 곳은 와이스(外事) 영빈관이었다. 이 건물은 와이스부(外事部)의 별관이다. 1실에 2대의 침대가 있고 80위안이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숙소이어서 싸다고 한다. 이들 분을 예약하려고 했더니 내일은 빈방이 없단다. 오늘 이 방도 예정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라고 했다. 지금 바깥으로 통하는 기차길이 모두 끊겨서 철도가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내의 값싼 여관은 초만원이라고 했다. 피곤한 나머지 호텔 방에서 오후 5시까지 빈둥거리며 쉬었다.

기운을 차려서 진원칭(金文成)씨에게 전화를 했다. 올해 33세인 몽골인으로 한어를 쓰며 몽골어는 한 두 마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작년에 내몽고대학에 머물 때 사귄 사람이다. 하이라얼시 교육국에 근무하는데 회의 차 후호호트에 자주 왔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 나는 장래에 하이라얼시에 갈 일이 있으며 언제 가게 될지 모르지만 만일 가게 되면 반드시 연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이다. 홀룬베르맹의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알아 볼 겸 얼굴도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것이다.



그는 지체없이 달려 왔다. 허씨가 없어서 예의 필담이 시작되었다. 나의 여행 목적과 여행 경로를 이야기해 주었더니 망설이다가 자기와 같은 탄웨이(單位)에서 근무하는 어윙키인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천한다. 꼭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즉시 전화를 걸어서 6시에 호텔로 오기로 약속을 하였다.

어윙키인과 허씨가 자전거로 거의 동시에 도착하였다. 이름은 이더르(伊德爾)씨이고 45세 말띠이며 몽골족 부인과의 사이에 13살 난 딸이 하나 있다고 한다. 집에서는 몽골어로 말하고 부친에게는 어윙키어로 말한다고 했다. 1978년에 내몽고대학 수학을 졸업했으며 1982년부터 하이라얼 일중(一中)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교육국에 근무한다고 했다. 어윙키인 지식인이다. 그는 어윙키어 외에도 한어 몽골어 다고르어를 쓴다고 했다.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그 이전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바얀차간(巴彥查崗)에서 출생하였으며 교사인 부모를 따라 휘(발음은 ‘호이’에 가깝다)숨(蘇木: 향(鄉)급 지방 행정 단위, 이전에는 공쓰(公司)라고 했음)에 나와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어윙키인은 전국에 25,600명이 있으며 맹내에는 15,600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생업은 목축이 주이며 일부는 1960년대까지 초원에서 파오쯔(狍子: 노루) 등을 수렵하기도 했다 한다.

카드로 언어 조사를 하었는데 즉칭부터 묻기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갔다.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눈을 감고 기억해 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간혹 지나간 카드를 뒤적이며 잘못 대답한 것을 수정해 주기도 하는 등 매우 협조적이었다. 조사가 다 끝나서 ‘수고하셨습니다’ 했더니 그것도 묻는 말인 줄 알고 어윙키어로 말해 주었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것도 번역해 준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했더니 이제야 비로소 끝난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우리는 한 바탕 웃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주었더니 이더르씨가 별 일이 없으면 동행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좋은 동행을 한 분 확보한 것이다. 비가 내리고 이미 어두워진 거리를 택시를 잡아타고 나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다.

식사비 270위안.

8월 11일(화) 비움, 만저우리, 달라이호 여행

8시 50분 하이라얼을 출발하였다. 오로첸기에서 온 진씨와 신씨도 아직 만주리에 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동행하게 되었다. 길은 아스팔트길이고 패인 곳도 별로 없어서 편했다. 길의 왼쪽으로는 하이라얼 강이 흐르고 있다. 9시 30분에 천바라그(陳巴爾虎)를 지나갈 때 초원 가운데 스탠드식 건축물이 보였다. 땡 단위의 나아땡(nagadam) 행사를 하는 곳이란다. 중국어로 나다무(那達慕)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몽골족 고유의 축제이다. 경기 종목은 말타기, 낙타 타기, 활쏘기 등인데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씨름 경기이다. 경기 방법이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 나라의 텔레비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별로 소개할 것은 없지만 작년에 후호호트에서 1주일 간 열린 내몽고 자치구 성립 40주년 기념 나아땡에 가보니 여성 선수들도 참가하여 씨름을 하는 것이 이채로웠다. 이러한 행사는 몽골인의 단결 의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물물 교환 또는 장사를 하는 시장의 기능도 하고 있어서 몽골인으로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행사가 된 것이다.

12시에 만저우리에 도착하였다. 소련과의 교역을 위해서 약 1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이다. 2층으로 된 큰 시장 건물에 들어가 보았는데 소련에서 온 장사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기념으로 뭔가를 하나 사려고 돌아다녔으나 아무 것도 사지 못하였다. 점심은 조선족이 경영하는 고려식당에서 먹었다. 사장 이재선(李宰善)씨는 신씨의 친척 되는 분이라 한다. 보신탕을 먹었는데 식사비는 물론 받지 않았다. 사장이 이것저것 상 위의 반찬을 권하며 맛이 어떠냐고 묻는다. 이사장은 식사가 끝난 후 신씨에게 돈을 주려고 한 5분을 실랑이를 하다가 실패하자 기어이 옷 가게로 데려가서 옷을 한 벌 사 준다. 우리 고유의 미풍 양속이 재현된 자리였다. 사장은 혹시 한국요리 만드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으면 한 개 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것을 보고 한국요리를 배운다고 한다.

오후 3시에 만저우리를 출발하여 홀룬호로 향하였다. 중간에 교량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군인들이 막고 있었다.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4륜 구동 지프차만이 갈 수 있는 초원의 질퍽한 길을 달려 4시 30분에 호

숫가에 도착하였다. 길이 막혀서 그런지 관광객은 거의 없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름인데도 추웠다. 손목의 시계 겸용 온도계를 보니 15도이다. 이 호수의 지도상의 명칭은 홀룬호인데 몽골인들은 바다 호수라는 뜻의 달라이(達賚) 노르라고 부른다. 호수의 크기는 우리 나라의 제주도 만하다. 맹의 이름인 ‘홀룬베르’는 이 홀룬호와 몽골과의 국경에 위치해 있는 베르호에서 따왔다고 한다.

대충 사진을 찍고 5시에 그곳을 출발하여 8시 30분에 하이라얼에 도착하였다. 오늘은 하서(河西)(이민강을 경계로 하여 하동과 하서로 나눈다)에 위치한 베이얼다주토펜(貝爾大酒店)에 자리를 잡았다. 이성급(二星級) 호텔이다. 녹물이 나오지 않는 호텔을 찾으려는 노력은 여기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1실 2 침대 200위안인데 여행사 할인 요금으로 식사 포함하여 160위안이라 한다.

#### 8월 12일(수) 비온 후 갬, 휘숨 답사

8시 40분에 어윙키인 이더르씨(이박시)가 호텔 방으로 올라왔다. 직장에 조퇴계를 내고 약속대로 와준 것이다. 9시가 되어 휘숨을 향해 출발하였다. 기사, 안내인 허씨, 이박시, 그리고 쓴이 이렇게 네 명이였다. 20분 후 어윙키자치기의 인민 정부가 있는 난툰에 들어섰다. 얼마 전 8월 1일에 자치기 성립 40주년 행사를 치른 뒤여서 아직 길 곳곳에는 경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인민 정부에 내려 길 상태를 물어 보았다. 이박시의 동생이 이곳 인민 정부에 근무한다고 하는데 동생은 없고 여러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아도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차만 믿고 예정대로 길을 가기로 했다. 지도를 보면 길은 원래 없고 초원 상에 자연적인 길이 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약 30분쯤 달리다가 몽골어만 말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묻던 중 (이 지역에는 한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한 켠에서 버스를 기다렸던 듯 한 아주머니가 길을 안다고 나섰다. 마침 휘숨 가는 길 중간쯤에 있는 언니 집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 아주머니를 태워 아스팔트길을 기우뚱 내려서서 초원으로 들어섰다. 갈림길이 나오면 이 아주머니가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 분은 부리

아트인이었다. 자칭을 물었더니 ‘보리아드’라고 대답한다. 선부른 지식으로 ‘하르’를 기대하고 ‘달’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서면어로는 ‘사르’인데 자기네들 말로는 ‘하르’라고 대답해 준다. 이들 부리아트인들은 원래 현재의 러시아 부리아트자치공화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데 러시아 혁명시 정치적인 이유로 이곳으로 집단 이주한 것이다. 멀리 흰 가족으로 덮인 ‘거르’가 보였고 그 곳이 언니의 집이라고 하였다.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이 분도 물론 부리아트인이다. “새앤 배애노”, “새앤 새앤”. 인사를 주고 받았다. 거르 주위에는 목책이 둘러 있었는데 손녀인 듯한 계집아이가 그 위에 걸터앉아서 말 타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 오른쪽에 있는 목책에는 열 마리 분 정도의 양가족을 넣어 말리고 있었다. 집 밖 여기저기를 돌면서 사진 촬영을 하고 그 집 가족들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사진 9>.



<사진 9>

그곳을 출발하여 다시 동서남북이 구별되지 않고 지평선만 보이는 초원으로 들어섰다. 이제부터는 대략의 방향만 잡고 가야 한다. 다행히 비가 온 뒤라서 길 찾기가 쉬웠다. 차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사는 바퀴 자국을 피해서 옆으로 그 길을 놓치지 않으면서 달렸다. 가끔 거

르가 보였다. 그 중에는 여름용 거르도 보였는데 굵은 버들가지(柳條)로 엮은 집이었다. 길을 가다가 펼친 날개 길이가 1미터 정도는 되어 보이는 매를 보았다. 차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주위를 큰 날개를 펼친 채 날아다닌다. 차바퀴 자국에 고인 물을 먹기 위해서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가끔 벽돌로 만든 정착 가옥도 나타났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동식 거르도



<사진 10>

같이 지어져 있었다<사진 10>. 중간 중간에 유목민이나 버섯 채집인을 만나 이박시가 길을 물어보았다. 그들은 하나 같이 소나무를 향해서 가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 주었다. 초원에 소나무라니. 앞에서도 말했지만 초원은 표토층이 얇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세어서 목본류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산에도 나무가 없는데 초원 상에 소나무라니. 우리는 그 정체를 궁금해하면서 남서 방향으로 계속 달렸다.

중간 중간에 차에서 내려서 초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다. 보라색 꽃이 군집으로 피어 있는 곳으로 가더니 ‘망기르’라고 가르쳐 준다.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地理志) 권35에 나오는 “蒜山縣 本高句麗 買尸達縣”의 ‘買尸’와 비교되면서 유명해진 단어이다. 그러나 실물을 보니 야생 마늘이 아니라 야



&lt;사진 11&gt;

생 부추이다<사진 11>. 한국의 산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가는 줄기를 따서 야생초를 먹던 버릇대로 깨끗이 닦아서 맛을 보고는 맛있게 먹었다. 날로 먹는 것을 보고 이박시가 놀란다. 맛은 부추 맛보다 부드러운 독특한 맛이다.

거르가 있었던 곳은 멀리서 보아도 한 눈에 알 수가 있다. 주위의 풀색과 다른 직경 5, 6미터 정도의 동그라미 모양이 바로 그 흔적이다. 중국인들은 이것을 취안(圈)이라고 부른다. 동그라미의 가장자리에는 반드시 버섯이 피어 있는데 유목민들이 거주하면서 재

배해 먹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포자가 남아 있어서 주인이 거르를 걷고 또 다른 수초풍미(水草豊美)한 곳을 찾아 떠나고 난 뒤에 자생하는 것이라 한다. 버섯 채집인들이 여기에 도달하면 황재한다고 한다. 비록 초원에 자생하는 것보다는 맛과 향이 못하겠지만 한 바구니는 거뜬히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넓은 초원을 걸어나다니면서 취안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후이씨가 버섯을 뜯어 “원이원”하면서 내게 내어 민다. 무슨 뜻인지 몰라 한자로 써 보랬더니 ‘聞一聞’이라고 들을 문자를 쓴다. 아하 ‘聞’자에 냄새 맡는다라는 뜻도 있나 보구나. 나는 버섯의 짙은 향기를 가슴 깊숙이 들어 마셨다.

시간이 12시를 넘어섰다. 앞쪽으로 희미하게 뭔가 보인다. 드문드문 거르와 양 떼 소 떼밖에 보지 못했는데 뭔가 색다른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가까이 가 보았더니 아! 소나무다. 늙은 자태의 소나무였다. 우리는 소나무라고 해서 한 그루의 소나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높이 2 내지 4미터의

언덕 위에 키가 10 내지 20미터는 됴직한 약 20 그루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하나 하나가 멋진 자태를 하고 있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초원 상에 용케도 흙이 모여 언덕이 생기고 그 흙이 단단해지면서 표토층이 깊어지고 어디에선가 솔 씨가 한 둘 날아와서 풍상을 견뎌 낸 것 이리라. 그것이 이제 군락을 이루고 초원의 유일한 이정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주위에 한참 머물다가 아쉬워하며 그곳을 떠났다.

이제 다 왔겠거니 했는데 마을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양치기를 만나 이박시가 또 묻는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다. 어윙키어로 대화를 했다고 한다. 어윙키 권으로 들어선 것이다. 이제부터 보이는 거르는 모두가 어윙키인의 집이라 한다. 겉으로 보아서는 몽골인, 부리아트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초원의 풀이 짧아졌다. 마을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다. 드디어 휘숨에 도착했다. 오후 1시였다. 직선 거리 120Km 되는 길을 140 Km로 돌면서 네 시간만에 온 것이다.

마을 어귀는 길이 온통 진흙탕이었다. 마을 주민의 안내로 그 마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식당 겸 여관으로 갔다. 식당에서 이것저것 주문을 한 후 우리는 안채로 가서 쉬었다. 침대 5개가 나란히 있는 여관방이었다. 이곳의 주인은 몽골족이었는데 그 가족들이 모여 앉아 텔레비전의 서부극을 보고 있었다. 우리가 쉬고 있는 사이에 이박시가 어윙키인 제보자를 한 분 모시고 왔다. 성명은 상더거(三德格)씨로 48세이며 휘숨 중심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했다<사진 12>.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곳 휘숨에는 1,4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 80%가 어윙키인이며 대부분이 어윙키어를 알고 있다고 한다. 성인은 어윙키어, 몽골어, 한어를 쓰며 어린이는 학교에서는 몽골어와 한어를 쓰고 집에서는 어윙키어를 쓴다고 한다. ‘어윙키’라는 족칭의 어원을 물었더니 ‘əwurəŋ’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산에서 내려 오다’라는 뜻이라고 했다. 점심이 준비되는 동안 카드를 이용하여 언어 조사를 하였다. 식사에 나온 버섯 요리가 일품이었다.

오후 3시 30분이 되어 이민을 향해 초원으로 다시 나섰다. 대체로 동쪽 방향으로 달리면 된다. 초원 한 가운데에 키 20m 정도 되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이것 역시 초원에서는 진귀한 존재로 이정표의 구실을 한다.



&lt;사진 12&gt;

초원을 빙빙 돌았는지 예정 시간보다 훨씬 늦게 오후 5시 50분이 되어서야 겨우 공로(公路)에 차를 올릴 수 있었다. 공로를 20분간 더 달려 이민메이광(煤礦)에 도착하였다(해발 820m).

이민은 초원 가운데에 건설된 공업 도시였다. 거대한 원통형 굴뚝이 2개 있고 석탄 운반 컨베이어가 길게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비교적 값이 싼 광밍다주톈(光明大酒店)에 자리를 잡았다. 1실 2침대 80원인데 일체의 부대 설비가 없었으나 뜨거운 물이 좋아서 오랜만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었다. 나와 이박시가 한 방을 썼다. 저녁 식사 후 기사 후이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100위안을 주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 준 이박시에게도 딸아이의 옷을 사 주라며 100위안을 드렸다. 그는 받지 않으려다가 겨우 받아 넣었다. 이 돈은 나중에 선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8월 13일(목) 흐리고 가끔 비, 어윙키어 조사

7시 30분 우리가 잔 여관의 옆에 있는 이민허(伊敏河) 빈관(1실 160위



안이라 해서 어제 못 든 곳이다)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다. 역시 뷔페 식으로 1인당 5위안이다. 외국인이 상당 수 눈에 띄었는데 안내인의 설명에 의하면 쥘자(專家)들이라 한다. 주로 러시아인인데 이 도시의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기술 요원들이란다. 8시 50분 이민 메이광을 출발하여 남으로 달렸다. 도중에 웅덩이에 기름 차가 빠져서 길이 막혀버렸다.

우리는 다시 초원으로 차를 내려 길을 내며 달려 40분 후 이민 솜에 도착하였다. 여기는 이박시도 처음이어서 인민 정부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이박시의 말에 의하면 인민 정부측에서는 우리의 조사가 자치기 정부의 승인을 받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몇 가지 했다고 하나 적당히 대답해 넘겼다 한다. 우리는 인민정부의 민정실에서 약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그들이 소개해 준 어윙키인을 만날 수가 있었다. 사인수릉(薩仁蘇榮)씨, 67세이며 향내에 6개의 자연 부락이 있는데 자신은 그 중 비루트(必魯圖)에 3대째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식구들도 모두 어윙키어를 일상 생활에서 쓴다고 했다. 언어 조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간단히 사례를 한 후 10시 40분 출발하였다. 이민 메이광을 지나고부터 아스팔트 길이였다. 초원 상에는 버섯 채집인들이 가끔 보였다. 낙타가 무리 지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정도의 북쪽에 낙타가 있는 것이 신기하여 왜 낙타를 키우느냐고 물었더니 이곳은 눈이 많은 지역인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낙타의 보폭이 커서 이동하는데는 오히려 다른 동물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12시 20분 드디어 어윙키족 자치기가 있는 난툰에 도착하였다. 이박시의 부친인 잉바(英巴)옹을 만났다. 부리아트 만두로 점심 식사를 한 후 미리 구해 놓은 숙소인 차이정폐이췌중신(財政培訓中心: 財政局 연수원 숙소)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로 지은 건물인데 1실 2침대에 100위안이다. 뜨거운 물이 없는 것을 빼놓고는 괜찮은 편이었다. 실은 어윙키족 자치기 성립 40주년 행사를 위해서 지은 호텔인 어윙키유이다주텐(鄂溫克友誼大酒店)에 들고 싶었으나 너무 비싸서(1실 218위안) 포기하였다. 잉바옹은 올해 70세이며 50년대에 휘솜학교 교장, 60년대에 난툰공사 부주임, 70년대에 바얀차간(巴彥查崗)쑤 서기, 80년대에는 기(旗) 정협교과문위(政協教科文委)의



&lt;사진 13&gt;

주임을 역임하신 분으로 지금은 퇴휴(退休)하신 분이다. 언어를 조사하다 보니 이박시와 다른 대답이 나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이박시가 아 하고 탄식을 한다. 잉바 옹은 어윙키족의 역사에 관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해주신다<사진 13>. 조사가 끝난 후 잉바 옹을 보내 드리고 하이라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일행들과 헤어졌다.

이로써 총 2,223Km를 돌아다닌 자동차 여행을 일단 마감하였다. 하이라얼이 바로 곁에 있지만 나로서는 어윙키 자치기에 머물면서 여기저기를 홀로 돌아다니고 싶었던 것이다. 잠이 쏟아졌다. 저녁은 낮에 다 못 먹어서 남은 닭고기 튀김 가져온 것과 인스턴트 우유차(奶茶)로 때웠다. TV 뉴스를 보았더니 건국 이래 최대이라던 홍수가 이제는 유사 이래의 최대라는 보도와 함께 철도 두절 소식을 알리고 있었다. 장쩌민 국가 주석과 리펑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남으로 북으로 다니면서 항홍(抗洪)을 독려하고 있고 인민군이 밤새 물 속에서 제방 구실을 하고 있는 장면도 방영되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급한 나머지 트럭을 물막이용으로 넣는 장면도 보였다. 그러나 웅당 있어야 할 수재민의 수는 얼마이며 임시 수용 상

황 등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 8월 14일(금) 하이라얼 도착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이다. 어윙키 텔레비전 방송국의 기상예보를 보았더니 오늘은 최저 기온이 13도 최고 기온이 20도라고 한다. 오전 7시 30분 현재 17.7도이다. 우산을 쓰고 여기저기를 돌아 다녀보았다. 길거리엔 자치기 성립 40주년 경축 플래카드가 몇 달려 있었다. “祝鄂溫克自治旗成立四十周年草原熱烈歡迎您遠方的客人”. 한 곳에서 ‘索倫酒家’라는 간판의 술집을 발견하였다. 나는 반가운 나머지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탁을 하여 그 간판을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어윙키인들은 원래 솔론으로 불렸던 사람이다. 청대(清代)에 솔론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58년에 족칭을 어윙키로 통일하고 이곳 난툰에 어윙키족 자치기를 세운 것이다. 난툰이란 지명은 하이라얼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이번에 새로 지은 어윙키 박물관이 있다. 민족별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주거지로서 어윙키족은 셴런주, 다고르족은 정거(定居) 주택인 일반 민가가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다. 어윙키족 전시물 가운데에 지금까지 출판된 책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그 중 어한(鄂漢)사전이 눈에 띄었다. 두·도르지(杜·道爾基)가 편자로 되어 있는 책인데 800쪽에 17,000여 어휘를 담고 있는 최대의 사전이다. 얼른 사무실로 달려가서 책을 구입할 수 없느냐고 물어 봤더니 이번 40주년 기념식에서 배포할 예정으로 500부를 찍었는데 당일 매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민 정부 내에 있는 민족연구소로 가보라고 알려주었다. 1시간쯤 이것저것 돌아보다가 40주년 기념으로 나온 어윙키 민가(民歌) CD 『祝福你鄂溫克』를 한 장 구입하고 그곳을 나서 길 건너편에 있는 인민 정부로 향했다.

마침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재민을 돕기 위한 대책 회의가 끝난 것이라 한다. 여기 저기를 기웃거리려 5층에 있는 민족연구소를 겨우 찾았는데 그 책을 구하려면 어윙키족연구회로 가보라고 했다. 어윙키족연구회는 법원 옆 구 인민정부 건물 내에 있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



&lt;사진 14&gt;

더니 마침 여성 세 분이 있었다<사진 14>. 인사를 하였더니 그 중 한 분이 안나(安娜)라는 명함을 내밀며 이곳의 주인이라고 하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어윙키족 관계 연구물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른 소수 민족은 이 정도의 연구를 갖추고 있는 어윙키족을 매우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어한(鄂漢)사전에 대해서 말했더니 그 책의 편자인 두·도르지씨는 이곳 어윙키족연구회의 부회장인데 지금 하얼빈(哈爾濱)에 출장중이며 책은 품절이 되어 현재 제2쇄를 인쇄 중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鄂温克族 歷史資料集(I II III)과 鄂温克族研究文集, 鄂温克語研究등의 책을 구할 수 있었다. 어윙키족에게서 받은 느낌은 당분간은 이들의 언어와 문화가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일찍 현실에 적응하여 수렵 생활에서 목축 농경 생활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오로첸족은 최근까지도 수렵 생활을 영위하다가 정거(定居)하게 되고 이제 총기마저 없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기 때문이다.

연구회를 나와 짐을 싸고 11시 30분 택시를 타고 난툼을 출발하였다. 하이라얼의 베이위안(北苑) 빈관까지 20분 정도가 걸렸다. 택시비는 30위

안이였다. 점심 식사를 한 후 와이스반공스를 방문하였다. 구체적인 협조는 없었지만 인사도 해 둘 겸 무사히 다녀온 것을 알릴 겸 해서 찾아간 것이다. 회의 중이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담당자인 양(楊福茂) 부주임을 만나서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그는 돌아갈 비행기표 걱정을 먼저 해주준 후(철로가 끊어져서 비행기로 몰리는데 표가 없다는 것이다) 성과는 있었느냐는 등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서 앞으로도 오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다. 나로서는 그들이 우리의 연구 조사 활동에 끼어들거나 통제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오후 시간은 이민 강가로 가 보았다. 강이 도시 한 가운데로 흐르는 것이 마치 고향인 대구나 서울과 같아서 친근감이 드는 도시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빨래며 낚시며 수영을 하고 있다. 저녁 6시에는 진(金文成)씨와의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 떠나 보내기가 섭섭해서 자기가 꼭 저녁을 사겠다는 것이다. 진씨와 허씨와 이박시 이렇게 4명이 호텔 뒤 한 식당에서 만났다. 그 식당은 환양러우(涮羊肉) 전문 식당인데 몽골의 전통적인 ‘할론 토고’(우리의 신선로)가 각 테이블마다 있고 그 솥에다 각종 양념을 넣어 물을 뜨겁게 끓여 이 뜨거운 물에 얇게 썬 양고기를 데쳐서 양념장에 찍어 먹는 것이다. 내몽고에서는 홀룬베르맹 초원이 가장 좋고 따라서 양고기도 가장 맛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과연 맛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이박시가 몽고칼을 선물로 준다. 손잡이가 뼈로 된 아주 비싼 것이었다. 호의에 감사하며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훈훈한 정을 느끼며 다음 방문을 기약하였다.

호텔비 200위안

8월 15일(토) 후호호트 도착

몸은 피곤하지만 그토록 그리던 통구스인 거주지를 방문하고 그들과 만나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었다는 즐거움을 안고 후호호트 바이타(白塔) 공항에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대학까지는 택시밖에 이용할 수 없고 그런 만큼 택시비가 턱없이 비싸다. 전과 같이 60위안을 주고 내몽고 대학 자오다이썬(招待所)인 툐리노르(桃李湖) 빈관에 도착하였다.